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 발표 원고(텍스트판)

2026년 9월 10일 WCAG 3.0 초안 기준입니다. 용어 번역은 발표자 시안입니다. 장마다 그림과 발표에서 하는 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괄호 속 멈춤은 발표자가 쉬는 시간입니다.

1.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

그림: 제목 "WCAG 3.0 초안이 평가 방법에 묻는 것", 부제 "2026년 9월 초안으로 본 적합성·범위·샘플", 발표자와 날짜.

안녕하십니까. 대구사이버대학교 정보화지원팀 권기표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W3C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W3C 실무그룹이 만들고 있는 WCAG 3.0 초안을 읽습니다. 기준은 실무그룹 안 논의가 아니라 9월 10일 초안이고요. 지금 하고 계신 평가 방법론, 곧 국내 EM 작업에 비추어, 평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 봅니다.

2. WCAG 3.0은 무엇을 지킬지는 새로 짜고, 무엇을 골라 볼지는 정하지 않았습니

그림: 한 문장.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배포판에는 아래에 순서 네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WCAG 3.0은 무엇을 지킬지는 새로 짜고 있는데요. 어떤 화면을 골라 평가할지는 WCAG 2 때도, 지금도 정하지 않았습니. (1초 멈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초 멈춤)

네 가지를 차례로 보죠. 지금 어디쯤인지, 무엇이 바뀌는지, 무엇을 정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열어 둘지입니다. 자료와 발표 전문은 마지막 장의 QR 코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받을게요.

3. WCAG 3.0은 아직 초안이고, 후보 권고안 목표는 2027년 4분기입니다

그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 여섯 개. 2021년 첫 초안, 2023년 방향 전환, 2026년 9월 최신 초안까지는 채운 점이고, 2026년 12월 다음 초안, 2027년 4분기 후보 권고안 목표, 그 뒤 권고안(날짜 미정)은 빈 점. 배포판에는 2026년 12월 대신 2025년 9월(개발 중인 항목만 수록) 점.

먼저 지금 어디쯤인지입니다. 채운 점은 지난 일, 빈 점은 계획입니다.

첫 공개 초안은 2021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항목마다 0점에서 4점을 매기는 점수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에 방향을 크게 바꾸었죠. 가장 최근 초안은 지난 9월 10일에 나왔는데요. 3월 초안에 비해 크게 네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적합성 수준은 하나로 줄었고, 핵심 요구사항마다 피해 정도를 다는 태그를 붙이는 안이 나왔고요. 원문 이름은 core requirement tag, 곧 핵심 요구사항 태그인데요. 저는 영향도 태그라고 부를게요. 범위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적합하다고 말하는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평가해야 합니다.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로는 경로와 컴포넌트가 더해졌고요. 끝으로 핵심 요구사항이 92개에서 106개로 늘었습니다.

실무그룹의 목표는 2027년 4분기 후보 권고안입니다. 다음 초안은 올해 12월에 낼 계획입니다. 정식 표준인 권고안의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4. 지금은 작업 초안이고, 요구사항은 다섯 상태 가운데 모두 개발 중입니다

그림: 두 줄 그림. 위 줄은 W3C 표준이 되는 네 단계(작업 초안, 후보 권고안, 제안 권고안, 권고안)이고 작업 초안이 강조되어 있다. 아래 줄은 작업 초안 안에서 절마다 붙이는 다섯 상태(임시, 탐색 중, 개발 중, 다듬는 중, 성숙)이고 개발 중이 강조되어 있다. 배포판 칸에는 영문 이름도 있다.

후보 권고안이 어디쯤인지 한 장으로 놓았는데요.

위 줄이 W3C 표준이 되는 순서입니다. 작업 초안, 후보 권고안, 제안 권고안을 거쳐 정식 표준인 권고안이 됩니다. 지금은 맨 앞의 작업 초안이죠.

아래 줄은 작업 초안 안에서 절마다 붙이는 상태인데요. 얼마나 무르익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임시, 탐색 중, 개발 중, 다듬는 중, 성숙의 다섯 단계입니다. 원문으로는 Placeholder, Exploratory, Developing, Refining, Mature고요. 탐색 중은 방향을 찾는 단계이고, 개발 중은 무엇이 필요한지 대략 합의했지만 큰 쟁점이 남은 단계입니다. 다듬는 중부터는 폭넓은 공개 검토와 시범 적용에 들어갑니다. 성숙은 실무그룹이 권고안으로 낼 준비가 됐다고 보는 단계고요. 강조한 칸이 지금 자리입니다. 9월 초안의 요구사항은 모두 개발 중이고, 보고 절은 탐색 중입니다.

일정은 이미 한 번 밀렸습니다. 2분기에 내려던 초안이 9월에 나왔거든요. 올해 안에 요구사항을 다듬는 중까지 올려 폭넓은 검토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직 그 수준에 이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WCAG 3은 2.2를 폐기하지 않으므로, 당분간 현장 기준은 2.2입니다

그림: 한 문장. "WCAG 3은 WCAG 2를 폐기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WCAG 3 확정 뒤에도 몇 년 동안 폐기하지 않는다는 W3C 설명.

그러면 WCAG 2.2는 어떻게 될까요. (2초 멈춤)

WCAG 3은 2.2의 뒤를 잇습니다. 그래도 W3C는 WCAG 2를 폐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WCAG 3이 확정된 뒤에도 몇 년은 그대로 둡니다.

초안에는 이런 전망이 실려 있는데요. WCAG 2.2의 A와 AA 수준을 충족했다면 3.0의 적합성도 대부분 충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테스트와 채점 방식이 달라서 추가 작업은 필요하다는 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현장의 기준은 WCAG 2.2와 KWAG 2.2입니다. 오늘도 지금 기준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만드는 평가 방법론이 몇 년 뒤에도 쓰이려면 어디를 열어 둘지 살핍니다.

6. 성공 기준 자리에 핵심 요구사항, 보충 요구사항, 어설션이 들어섰습니다

그림: 큰 숫자 셋. 핵심 요구사항(Core requirement) 106, 모두 충족해야 적합. 보충 요구사항(Supplemental requirement) 74, 핵심 위에 더함. 어설션(Assertion) 35, 조직의 절차를 밝힘. 아래에 2026년 9월 초안 기준 모두 개발 중이고 권장 관행 1개를 더해 216개라는 설명.

이제 무엇이 바뀌는지 보죠. 먼저 WCAG 2.2를 떠올려 보시면, 원칙 4개 아래 지침 13개, 그 아래 성공 기준 86개가 있었습니다. 성공 기준마다 A, AA, AAA 수준이 붙어 있고, 모두 테스트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혀 있었죠. 3.0 초안에서는 그 성공 기준 자리에 세 가지가 들어섰습니다. 핵심 요구사항 106개, 보충 요구사항 74개, 어설션 35개입니다.

2.2가 성공 기준을 수준으로 나눴다면, 3.0은 조항의 종류로 나누는 셈인데요. 핵심 요구사항은 적합하려면 모두 지켜야 하고요. 보충 요구사항은 핵심 위에 더하는 요구로, 적합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설션은 조직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밝히는 진술입니다.

어설션은 2.2에 없던 종류라 조금 더 풀어 볼게요. 화면을 검사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을 조직이 했다고 밝히는 겁니다. 농인, 난청인과 자막 사용성 테스트를 했다, 쉬운 말로 썼는지 검토했다, 직원에게 접근성 교육을 했다 같은 거죠. 초안의 예시를 보면 누가, 언제 했는지를 함께 밝히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11장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적는 형식도 달라졌고요. 번쩍임 요구사항이라면 먼저 번쩍임이 기준값 아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에 번쩍임이 있을 때 적용하고, 꼭 필요할 때는 예외라는 내용이 따로 붙습니다.

이 셋에 권장 관행 하나를 더한 216개 모두 개발 중입니다. 4장에서 본 대로 그다음 단계가 다듬는 중인데요. 여기까지 간 요구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7. 적합성 수준은 A·AA·AAA 셋에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림: 두 칸 비교. 왼쪽 WCAG 2.2는 A·AA·AAA 세 수준, 보통 AA까지 요구, 기준별 충족·미충족.

오른쪽 WCAG 3.0 초안은 수준 하나, 핵심 요구사항 전부 충족이 적합, Bronze·Silver·Gold는 적합성 위 보고 단계.

적합성 수준도 바뀌었습니다.

왼쪽 칸 WCAG 2.2는 A, AA, AAA 세 수준이죠. 오른쪽 칸은 3.0 초안입니다. 핵심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하면 적합합니다. 적합성 수준은 하나뿐입니다.

3월 초안에서는 Bronze, Silver, Gold가 A, AA, AAA처럼 적합성 수준이었는데요. 9월 초안에서는 이 셋이 보고 단계로 옮겨 갔고요. 결과를 보고할 때, 적합한 뒤에 얼마나 더 갖췄는지 보여 주는 단계입니다.

적합성 절은 탐색 중에서 개발 중으로 올라갔습니다. 보고 단계는 따로 떼어 냈고, 아직 방향을 찾는 탐색 중이고요. 실무그룹은 이렇게 바꾼 것이 도입하고 쓰기에 더 나은지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국내 인증은 또 다릅니다. 수준 구분 없이 33개 검사항목마다 준수율 95% 이상이면 전문가 심사에 합격합니다. 3.0의 적합성은 2.2와 마찬가지로, 핵심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증 합격과 적합성은 다른 판정이라, 두 결과를 평가 방법론에 어떻게 함께 적을지가 쟁점입니다.

8. 영향도 태그를 붙이는 안이 나왔고, Bronze·Silver·Gold는 보고 단계로 옮겨 갔습니다

그림: 아래에서 위로 쌓은 네 층. 1단계 신체 피해 방지(신체 피해·위험 태그), 2단계 기초 접근(+ 장벽 태그), 3단계 적합성(+ 불편 태그), 맨 위 4~6단계 Bronze·Silver·Gold(+ 보충 요구사항과 어설션). 옆 띠에 "보고 단계, 누적, 탐색 중", 발표판은 띠 아래에 "대안: 가중치 3·2·1 점수".

9월 초안에는 핵심 요구사항마다 영향도 태그를 붙이는 안이 실렸는데요. 태그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를 나타냅니다. 오류 하나하나가 아니라 요구사항마다 매기는 겁니다. 신체 피해, 위험, 장벽, 불편의 네 가지로, 원문으로는 physical harm, risk, barrier, friction입니다. 개별 요구사항에는 아직 붙지 않았고요.

신체 피해는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이 바로 몸을 다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험은 금전, 의료, 법률, 개인정보, 보안 위험을 지나치게 키우는 경우입니다. 장벽은 하던 일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불편은 진행을 어렵게 합니다.

그림은 아래에서 위로 쌓은 네 층이죠. 맨 아래가 1단계로, 신체 피해와 위험 요구사항을 지킨 상태입니다. 장벽 요구사항까지 지키면 2단계이고, 불편 요구사항까지 지키면 3단계, 곧 적합성입니다. 그 위에 보충 요구사항과 어설션을 더하면 Bronze, Silver, Gold가 되는 거죠.

이 보고 단계 절은 규범이 아니고, 아직 탐색 중입니다. 첫 초안처럼 점수를 매기는 안도 가중치 대안으로 다시 나왔고요. 신체 피해와 위험은 3점, 장벽은 2점, 불편은 1점을 매겨 진행률을 냅니다. 두 안 모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접근성 기업은 9월 초안에 단 공개 의견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지키게 한 점을 반겼는데요. (1초 멈춤) 그러면서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요구가 보충 요구사항으로 밀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9. 평가 단위에 페이지와 함께 뷰와 프로세스가 들어옵니다

그림: 나란히 놓은 네 칸. 페이지·뷰, 프로세스, 경로(정의 중), 컴포넌트(정의 중). 프로세스 칸이 강조되어 있고, 아래에 프로세스에 속한 화면은 모두 넣는다는 설명.

평가 단위도 바뀝니다.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 네 가지를 칸으로 놓았는데요.

3.0 초안은 페이지와 뷰를 함께 쓰고, 주소가 있는 페이지를 우선 단위로 봅니다. 모달 창이 뜨면 새 뷰입니다. 경로와 컴포넌트는 9월 초안에 새로 들어왔고, 아직 정의 중이고요.

강조한 칸은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화면이 프로세스에 속하면, 그 프로세스의 화면을 모두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민원 신청을 예로 들어 보죠. 로그인, 신청서 작성, 파일 첨부, 제출 확인까지 모든 화면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본인인증 화면도 들어갑니다. WCAG 2의 전체 과정 요건과 취지가 같습니다.

10.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따옴표로 크게 옳긴 초안 주석. "범위를 고르는 방법은 WCAG 3에서 정하지 않는다." 아래에 같은 주석에 WCAG-EM 같은 안내나 지역 법규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는 줄. 배포판에는 주석 전문 번역.

그러면 무엇을 골라 볼까요. (2초 멈춤)

초안의 용어 정의에 붙은 주석을 옮겨 왔는데요. 적합성 범위로 삼을 대상을 어떻게 고를지는 WCAG 3에서 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W3C 평가 방법론인 WCAG-EM 같은 비규범 안내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나 지역의 법과 규정이 방법론을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초 멈춤)

다만 범위를 정한 뒤에는 그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평가에 넣어야 합니다. 고른 화면만으로 사이트 전체의 적합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그룹은 테스트와 보고 안내를 따로 만들기 시작했고, 연말까지 개요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이미 진흥원의 표준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사이트 규모로 심사할 페이지 수를 정합니다. 고를 페이지는 메인, 로그인, 통합검색, 주요 목적 서비스 같은 유형별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가입이나 조회처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서비스는 단계별 페이지를 고르게 합니다. (1초 멈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11. 테스트는 판정이 갈리는 정도로 나누고, 조직의 절차는 어설션으로 다룹니다

그림: 두 칸 비교. 왼쪽 테스트는 정량(평가자가 달라도 결과가 거의 같음)과 정성(평가자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음), ACT 규칙으로 정리 예정(비규범). 오른쪽 어설션은 조직의 절차를 진술로 밝히고 진술에 적을 정보만 확인, 필수 여부는 미정.

테스트를 나누는 방식은 초안과 함께 나온 설명 문서에 실린 안인데요. 아직 탐색 중입니다.

왼쪽 칸이 테스트죠. 평가자가 달라도 결과가 거의 같은 정량 테스트와, 평가자마다 결과가 갈릴 수 있는 정성 테스트로 나눕니다.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있는지는 정량으로 판정합니다. 그 대체 텍스트가 이미지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지는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WCAG 2 평가에서도 하던 구분에 이름을 붙인 셈이죠. 실무그룹은 이 테스트를 ACT 규칙, 곧 접근성 적합성 테스트 규칙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규칙은 규범이 아닌 참고 자료입니다.

오른쪽 칸 어설션은 자막 사용성 테스트, 쉬운 말 검토, 직원 교육, 접근성 성명 같은 거죠. 결과가 좋은지는 보지 않고, 어설션 진술에 공개해야 할 정보가 다 있는지만 봅니다. 자막 사용성 테스트라면 누가 테스트했는지, 테스트한 날짜와 진술한 날짜가 그 정보고요. 뒷받침 기록을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설션을 필수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니다.

12. 기본 접근성 지원 세트는 영어 콘텐츠 기준이고, 다른 언어의 세트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두 줄 문장. "기본 세트는 영어 콘텐츠 기준이고, 한국어 지원 세트는 대체 세트입니다." 아래에 실무그룹이 구현 방법(method)을 테스트하는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 조합이라는 풀이. 배포판 큰 글은 "기본 지원 세트는 영어 콘텐츠 기준입니다."

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국어 지원 세트입니다. 한국어 환경에서 구현 방법이 통하는지 볼 브라우저, 보조기술, 설정의 조합을 말합니다. 3.0 초안에 따르면 적합성을 주장할 때 접근성 지원 세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기본 세트는 실무그룹이 구현 방법을 테스트할 때 쓰는 조합이고요. 영어 콘텐츠를 지원하는 흔한 브라우저와 보조기술로 정할 예정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기본 세트에서 통하는 방법이 없으면 핵심 요구사항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언어와 지역의 대체 세트는 개인이나 기관, 지역 규제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으로는 WCAG-EM에 접근성 지원 기준선을 정하는 단계가 이미 있고요. 국내 전문가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브라우저로 봅니다. 사용자 심사에서 전맹 심사원은 PC에서 스크린 리더 하나 이상, 모바일에서 두 가지 모두로 과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영어 환경에서 통과한 방법이라고 한국어 스크린 리더에서도 꼭 통하지는 않습니다.

13. WCAG-EM 2.0은 WCAG 2용이지만, 뷰는 다른 기준에도 맞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림: 두 칸 비교. 왼쪽 WCAG-EM 1.0(2014)은 웹사이트, 웹 페이지. 오른쪽 2.0(2026년 7월)은 웹·앱·키오스크·문서, 뷰(평가에 쓰는 표준이 정한 단위), 평가 기준은 여전히 WCAG 2. 배포판에는 1.0 칸에 구조적 샘플과 무작위 10%, 2.0 칸에 샘플 선정 틀은 그대로라는 줄이 더 있다.

W3C 평가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7월 WCAG-EM 2.0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다음 순서에서 소개해 주시니까, 저는 3.0과 이어지는 한 가지만 짚을게요.

WCAG-EM 2.0이 평가하는 기준은 여전히 WCAG 2입니다. 다만 뷰는 웹 페이지나 문서뿐 아니라, 평가에 쓰는 표준이 정한 단위까지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은 KWCAg에도, 나중에 3.0에도 옮겨 쓰기 쉽다고 봅니다. 실무그룹도 WCAG 2에서 3으로 옮겨 가는 안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4. 국내 EM 표준에는 범위, 보고, 용어 세 곳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림: 번호 붙은 세 칸. 범위(뷰·프로세스, 페이지 산정·선정 규칙), 보고(준수율과 못 지킨 검사항목 목록, 오류 유형별 심각도, 확인한 지원 세트), 용어(대응표). 아래에 넣을지는 표준 작업에서 정할 일이라는 줄.

국내 EM 표준에 3.0 개념이 들어오도록 열거할 세 곳을 세 군데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범위입니다. 페이지와 함께 뷰와 프로세스를 단위로 쓰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샘플링을 다루겠다던 편집자 주도 9월 초안에서는 빠졌고요. 표준심사 지침의 페이지 선정 규칙을 국내 EM 문안으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고입니다. 준수율 옆에 못 지킨 검사항목의 목록과 오류 유형별 심각도를 함께 적는 자리인데요. 8장에서 본 영향도 태그 네 가지는 아직 탐색 중입니다. 표준심사 지침에도 오류와 권고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한 브라우저와 보조기술을 버전까지 적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렇게 적으면 인증 합격 여부와 적합성 판정을 한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용어입니다. 초안 용어는 판마다 바뀝니다. 번역을 고정하기보다 영문과 국문을 나란히 둔 표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배포 자료 부록 2에 시안을 붙였습니다.

어느 것을 넣을지는 표준 작업에서 정하실 일입니다.

15. 토론 질문 두 가지: 무엇을 골라 볼지, 한국어 지원 세트

그림: 위에 핵심 문장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큰 질문 두 줄. 무엇을 골라 볼지, 어디서 출발할까요? 한국어 지원 세트는 어떻게 정할까요? 오른쪽에 발표 자료 내려받기 QR 코드(codeslog.com/talks/2026-nia-wcag3). 아래에 연락처. 배포판 질문 1은 "무엇을 골라 볼지, 국내 규칙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이제 정리해 보죠. (1초 멈춤)

무엇을 골라 볼지는 WCAG 3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EM이 그 규칙을 적을 수 있습니다. (1초 멈춤)

열거할 세 곳은 범위, 보고, 용어, 이렇게 세 군데였죠. 이어지는 논의에 질문 두 개를 드립니다. (2초 멈춤)

첫째, 무엇을 골라 볼지, 국내 규칙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표준심사 지침에서는 규모로 페이지 수를 정하고, 유형별 우선순위로 페이지를 고릅니다. WCAG-EM에서는 구조적으로 고른 샘플에 무작위 10%를 더합니다. 둘을 어떻게 맞추기부터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어 지원 세트는 어떻게 정할까요? 표준심사 지침에서는 스크린 리더를 최신 버전으로 봅니다. 조합을 무엇으로 할지, 버전을 고정할지, 얼마나 자주 고칠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버전과 주기는 W3C에 널 의견으로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2초 멈춤)

실무그룹은 4분기에 범위와 보고를 검토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공개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창구와 출처는 배포 자료 부록 4에 적었습니다. 오늘 자료와 실무 참고자료는 화면의 QR 코드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1. 초안별 요구사항 수와 9월 초안에서 달라진 점

초안별 요구사항 수. 2025년 9월 4일 판: 지침 49, 기초 요구사항 88, 보충 20, 어설션 13, 121개 모두 개발 중. 2026년 3월 3일 판: 지침 44, 핵심 요구사항 92, 보충 61, 어설션 28, 모범 관행 1, 182개 모두 개발 중. 2026년 9월 10일 판: 지침 46, 핵심 요구사항 106, 보충 74, 어설션 35, 권장 관행 1, 216개 모두 개발 중. 2025년 9월 판부터 개발 중 이상인 항목만 실었습니다. 이름 변화: 결과(2021), 요구사항(2024년 12월), 기초 요구사항(2024년 12월 일부, 2025년 9월 전면), 핵심 요구사항과 모범 관행(2026년 3월), 권장 관행(2026년 9월).

2026년 9월 초안에서 달라진 점(3월 초안과 비교)

1. 적합성 수준: 3월에는 Bronze·Silver·Gold가 A·AA·AAA처럼 적합성 수준이었고, 9월에는 수준이 하나(핵심 요구사항 전부)입니다. 세 이름은 적합성 위 보고 단계(4~6단계)가 되었고, 적합성 절은 탐색 중에서 개발 중이 되었습니다(7·8장).
2. 영향도 태그: 핵심 요구사항에 신체 피해·위험·장벽·불편 태그를 붙이는 안이 실렸습니다(보고 절, 탐색 중). 개별 요구사항에는 아직 붙지 않아, 어느 요구사항이 1·2단계에 드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8장).
3. 범위: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MUST)이 생겼고, 대표 샘플링을 다루겠다던 편집자 주는 빠졌습니다.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에 경로·컴포넌트가 더해졌습니다(9·10·14장).
4. 항목 수: 182개에서 216개로 늘었습니다(핵심 92에서 106, 보충 61에서 74, 어설션 28에서 35, 관행 1 그대로). 모범 관행은 권장 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초안별 수).

부록 2. 용어 대응표(발표자 시안)

용어 대응표(발표자 시안). core requirement는 핵심 요구사항, 적합하려면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구. supplemental requirement는 보충 요구사항, 핵심 위에 더하는 요구(구현 부담이 지나치게 큰 요구

포함). assertion은 어설션, 조직의 절차를 밝히는 진술. conformance claim은 적합성 주장, 적합성을 밝히는 문서. core requirement tag는 영향도 태그(발표자 명명), 요구사항별 최대 피해(severity)로 신체 피해·위험·장벽·불편. tiers of reporting은 보고 단계, 1(아래)부터 6(위)까지 누적. Exploratory, Developing, Refining은 탐색 중, 개발 중, 다듬는 중. 이 순서로 진행하는 항목 상태. conformance scope는 적합성 범위, 적합성 주장에 넣은 대상(표준심사 지침 2장의 심사 대상). view와 process는 뷰와 프로세스, 화면 단위와 과정 전체(표준심사 지침의 일련의 과정). accessibility support set은 접근성 지원 세트(기본 세트와 대체 세트), 방법이 통하는지 보는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 조합(표준심사 지침 6장 심사 환경). Working Group(AG WG)은 실무그룹.

부록 3. 국내 품질인증 심사와 WCAG-EM 2.0, WCAG 3.0 초안

국내 품질인증 심사(표준심사 지침)와 WCAG-EM 2.0, WCAG 3.0 초안을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기준: 국내는 KWCA 2.2 33개 검사항목입니다. WCAG-EM 2.0은 WCAG 2를, WCAG 3.0 초안은 핵심 요구사항 106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샘플: 국내는 URL 1페이지가 기준입니다. 신규 심사에서는 사이트 전체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이하면 전체를 심사하고, 21~100페이지면 20페이지, 100페이지 이상이면 25페이지를 전문가 심사 페이지로 고릅니다. 고를 때는 유형별 우선순위를 따르고, 목적 서비스는 과정 전체를,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콘텐츠는 단계별 페이지를 넣습니다. WCAG-EM 2.0은 뷰 단위로, 구조적 샘플에 무작위 10%와 전체 과정을 더합니다(Step 3). WCAG 3.0 초안은 적합성을 주장하면 정한 범위 안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평가에 넣게 하고, 범위를 고르는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정: 국내 전문가 심사는 검사항목마다 준수율 95% 이상, 사용자 심사는 과업 성공률 100%입니다. WCAG-EM 2.0은 평가한 샘플 모두에서 충족해야 하고, 점수는 선택입니다(쓰면 산출 방식을 밝힘). WCAG 3.0 초안은 핵심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 국내 전문가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브라우저, 사용자 심사는 스크린 리더 최신 버전(PC 하나 이상, 모바일 두 가지 모두)으로 보고, 저시력은 확대·고대비 기능, 지체(상지)·뇌병변은 키보드만(모바일은 한 손가락) 쓰는 조건으로 봅니다. WCAG-EM 2.0은 접근성 지원 기준선(Step 1.3), WCAG 3.0 초안은 접근성 지원 세트(기본은 영어)를 씁니다.

사용자 참여: 국내는 사용자 심사가 필수입니다(신규 3인 이상으로 전맹, 저시력, 지체(상지)·뇌병변 유형을 넣고, 과업 10개 이상). WCAG-EM 2.0은 적극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WCAG 3.0 초안에서 사용성·보조기술 테스트는 어설션입니다.

적합성과 인증·법적 준수(compliance)는 다른 판정입니다.

부록 4. 출처(확인일 2026. 10. 13.)와 의견 창구

1. WCAG 3.0 Working Draft(2026. 9. 10.) w3.org/TR/2026/WD-wcag-3.0-20260910
2. WCAG 3.0 Working Draft(2026. 3. 3., 비교용)
w3.org/TR/2026/WD-wcag-3.0-20260303
3. Explainer for WCAG 3.0, 그룹 노트 초안(2026. 9. 10., 비규범)
w3.org/TR/2026/DNOTE-wcag-3.0-explainer-20260910
4. W3C WAI, WCAG 3 Introduction(2026. 9. 25. 갱신)
w3.org/WAI/standards-guidelines/wcag/wcag3-intro
5. AG WG 새 차터(승인 전, 2026. 6.) w3.org/2026/06/ag-wg-charter.html
6. wcag3 위키 Schedule(2026. 9. 10. 편집, 실무그룹 작업 문서)
github.com/w3c/wcag3/wiki/Schedule
7. WCAG-EM 2.0 Group Note(2026. 7. 23.)
w3.org/TR/2026/NOTE-wcag-em-2-20260723
8. ACT Rules Format 1.1(2026. 2. 5.)
w3.org/TR/2026/REC-act-rules-format-1.1-20260205
9.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12., 2025. 1. 1. 시행)
10. WCAG 3 공개 의견 github.com/w3c/wcag3/issues, public-agwg-comments@w3.org

읽기 도움말(통역과 낭독용)

- W3C: 더블유스리씨.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 WCAG: 더블유캐그. 2.x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0의 정식 이름은 W3C 접근성 지침. WCAG 3과 WCAG 3.0은 같은 것을 가리킴
- KWCAAG: 케이더블유캐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판은 국가표준 KS X OT0003:2022(2022. 12. 28.)

- WCAG-EM: 더블유캐그 이엠. WCAG 평가 방법론(2.0). 1.0의 이름은 웹사이트 접근성 적합성 평가 방법론
- 국내 EM: 국내 평가 방법론(Evaluation Methodology) 표준 작업. 이 자료에서 WCAG-EM이라고만 쓰면 W3C 문서
- AG WG: 에이지 더블유지. W3C 접근성 지침 실무그룹
- CR: 씨알. 후보 권고안(Candidate Recommendation)
- 차터: charter. W3C 실무그룹의 활동 범위와 산출물, 일정을 정한 문서. 새 차터는 승인 전
- 접근성 지원 세트: accessibility support set. 방법이 실제로 통하는지 확인할 때 쓰는 브라우저·보조기술·설정 조합. 기본 세트는 실무그룹이 정하는 영어 콘텐츠용 조합, 대체 세트는 다른 언어·지역용으로 개인·기관·지역 규제기관이 정하는 조합(한국어 지원 세트)
- 방법: method. 요구사항을 지키는 구현 안내(특정 기술용 또는 기술 무관). 기법·예시·테스트를 담고 비규범. WCAG 2의 기법(techniques)과 비슷한 자리
- 접근성 지원 기준선: accessibility support baseline. WCAG-EM 2.0 Step 1.3에서 평가에 쓸 브라우저·보조기술을 정한 것
- ACT: 액트. 접근성 적합성 테스트(Accessibility Conformance Testing). ACT 규칙 형식은 그 규칙을 쓰는 형식을 정한 W3C 권고안. ACT 규칙은 비규범
- A·AA·AAA: 에이·더블에이·트리플에이. WCAG 2의 적합성 수준
- 어설션: assertion. 조직의 절차를 밝히는 진술. 접근성 성명(국내 사이트의 웹 접근성 정책 페이지에 해당) 같은 예가 있음
- 설명 문서: Explainer for WCAG 3.0. 초안과 함께 낸 그룹 노트 초안. 규범이 아니고 W3C 승인 문서도 아님
- 그룹 노트: Group Note. 실무그룹이 내는 참고 문서. 정식 표준(권고안)이 아님
- 적합성: conformance. 국내 WCAG 2.1 비공식 번역은 '준수'로 옮김. 인증 합격·법적 준수(compliance)와는 다른 판정
- 영향도 태그: core requirement tag. 요구사항마다 붙이는 가장 큰 피해(원문 severity) 표시. 발표자 명명
- 보고 단계: tiers of reporting. 1(아래)부터 6(위)까지 누적. 3단계가 적합성, 4~6단계가 Bronze·Silver·Gold
- 뷰: view. 화면 단위. 웹 페이지, 앱 화면, 문서 등
- 탐색 중·개발 중·다듬는 중: Exploratory·Developing·Refining. 초안 항목의 상태(이 순서로 진행)
- Bronze·Silver·Gold: 브론즈·실버·골드. 보고 단계 4~6
- 좁힌 범위: limited scope. 적합성 범위를 페이지·뷰, 프로세스, 경로, 컴포넌트로 좁혀 정하는 방식. 이 자료의 「범위를 좁혀 정하는 단위」. 경로와 컴포넌트는 정의 중
- 표준심사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2024. 12., 2025. 1. 1. 시행). 품질인증 심사 대상, 페이지 산정, 심사 환경, 심사 기준을 정한 문서

참고 자료

- W3C, WCAG 3.0 Working Draft(2026. 9. 10.)
<https://www.w3.org/TR/2026/WD-wcag-3.0-20260910/>
- W3C, WCAG 3.0 Working Draft(2026. 3. 3., 비교용)
<https://www.w3.org/TR/2026/WD-wcag-3.0-20260303/>
- W3C, Explainer for WCAG 3.0(그룹 노트 초안, 2026. 9. 10.)
<https://www.w3.org/TR/2026/DNOTE-wcag-3.0-explainer-20260910/>
- W3C WAI, WCAG 3 Introduction(2026. 9. 25.)
<https://www.w3.org/WAI/standards-guidelines/wcag/wcag3-intro/>
- W3C, AG WG 새 차터(승인 전, 2026. 6.)
<https://www.w3.org/2026/06/ag-wg-charter.html>
- w3c/wcag3 위키 Schedule <https://github.com/w3c/wcag3/wiki/Schedule>
- W3C, WCAG-EM 2.0(2026. 7. 23.)
<https://www.w3.org/TR/2026/NOTE-wcag-em-2-20260723/>
- W3C, ACT Rules Format 1.1(2026. 2. 5.)
<https://www.w3.org/TR/2026/REC-act-rules-format-1.1-20260205/>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표준심사 지침(2024. 12., 2025. 1. 1. 시행)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 2022. 12. 28.)
- WCAG 3 공개 의견: <https://github.com/w3c/wcag3/issues> 또는
public-agwg-comments@w3.org

발표: 2026. 10. 16.(금) 디지털접근성표준화포럼 서비스분과 회의, 권기표(대구사이버대학교
정보화지원팀). 문의: eryngium86@dcu.ac.kr